



2018년 5월 6일(제874호)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예수님의 ‘친구’ 이십니까?

친구는 우리말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친구를 ‘시간과 공간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다른 언어권에서는 친구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친구’라는 단어 안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원문인 그리스어로 친구는 ‘philos’인데,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인 ‘philein’과 그 어원을 같이 두고 있고, 라틴어에서도 친구를 ‘amicus’라 하는데, 이는 ‘사랑’을 뜻하는 ‘amor’와 ‘함께’를 뜻하는 ‘cum’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친구란 단순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가까움을 넘어서 그 안에 분명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진정한 친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사이에는 어떠한 구속도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친구가 이런 사이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할례 받은 이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이 믿는 하느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친구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는 경계를 넘어 차별이 없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친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고, ‘친구를 위해 당신이 보여줄 모습을 예고’한 것이며,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친구’가 되고자 하였고, ‘친구’로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친구라고 불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두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김승(티.아퀴나스) 신부  
농장(육군 제31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10,25-26.34-35.44-48

회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독 시 1요한 4,7-10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 15,9-17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강경복 수산나



성인명: 강경복 수산나 (姜景福 Susan)  
 신분: 양인, 궁녀, 동정 순교자  
 활동연도: 1762-1801년

강경복(姜景福) 수산나(Susanna)는 1762년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궁녀가 되었으며, 순교할 때까지 동정으로 생활하였다. 그녀가 살던 집은 ‘양제궁’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폐궁’(궁궐에서 쫓겨난 왕실의 친족이 거처하던 집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렀다. 그 집의 주인은 송 마리아와 그녀의 며느리인 마리아였다. 이들은 일찍부터 천주교에 입교하여, 주문모 야고보 신부나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와 자주 오가고 있었다.

1798년 무렵, 집주인 송 마리아는 강 수산나를 불러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면서 이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이때부터 강 수산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교리를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 집주인들과 함께 자주 강 골롬바의 집으로 가서 주 야고보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나 신앙 집회에 참석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주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노비인 남구월의 안내를 받아 양제궁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강 수산나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갔다가 우연히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양제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 때문에 주 야고보 신부는 다행히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주 야고보 신부가 피신한 뒤 강 수산나도 양제궁을 몰래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뒤따라온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강 수산나는 곧바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미 천주교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포도청에서는 그녀를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이송하였으며, 더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진 탓에 잠시 마음이 약해져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의금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듣자 강 수산나를 형조로 내려보냈다. 그러자 그녀는 의금부에서 잠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을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그녀는 이제 신앙을 위해 형벌과 죽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 수산나는 마침내 강완숙 골롬바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1801년 7월 2일 (음력 5월 22일)에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39세였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아빠랑 함께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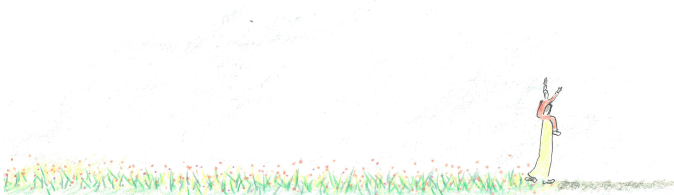
아빠랑  
 함께 가는  
 이 길은,  
 꽃길입니다.

마냥,  
 행복한  
 길입니다.

아빠랑  
 함께 하는 길은,

나도  
 아빠가 되면.

꼭.



상화이야기

의지의 성모

성모 성월인 5월 1주 그림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성모님과 그 옆에 두 손을 모으고 이 둘을 바라보는 아기 세례자 요한을 그린 성화이다.

이 그림은 딱히 어려운 도상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간에 흐르는 부드러움과 따뜻함, 넘치는 애정과 친밀함이 잘 드러난 그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성화이다. 동그란 그림은 대부분 결혼하는 여인에게 선물로 주는 그림들이기도 하였는데,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역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 전체 인물들의 윤곽 및 자세 모두 부드러운 곡선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성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애정과 기도로 이어진 세례자 요한까지, 이 그림은 깊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충만하다.



라피엘로(1483-1520)  
1513-1514년 作, 패널 위 유화 71 X 71 cm  
피티 궁, 이탈리아 피렌체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진진 이재혁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군중앙(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6일(주일)

- 회의

때·곳: 5월 8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국제군인 상지순례대회

때: 5월 10일(목)-23일(수), 12박 13일  
곳: 프랑스(루르드), 스페인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5월 10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